



표지사진 : 인도 동게스와리 수자타 기술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어린이들 (2003. 1월)

JTS 통권 40호 2003년 3·4월

펴낸날 : 2003. 3.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윤미옥, 유미영,
황미숙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 4 수자타어린이를 축복해 주신 성하 달라이라마
- 6 당당한 인도의 역군이 되어
- 8 추위로 인한 재난
- 9 인도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는

- 10 정월대보름은 북한에서도 때때옷 입고 인사 가네요

아프가니스탄 소식

- 12 아프가니스탄 사업계획
- 14 아프간의 꿈과 희망이

따뜻한 이웃

- 16 물품모으기에 여념없는 대구정토포럼

후원의 소리

- 18 아내의 귀가
- 19 마음의 풍요

활동보고 및 안내

- 20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아프가니스탄 소식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 22 신규회원 명단 및 물품지원
- 24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28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30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수자타어린이를 축복해 주신 성하 달라이라마

김동훈 / 인도 지바카병원 담당자



지난 11일, 달라이 라마(Dalai Lama) 성하께서는 인도 최극빈 지역 중 하나인 ‘동게스와리(Dhongeshwari)’ 지역에서 한국인 불자들에게 의해 운영되고 있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개발구호사업장 JTS(이사장: 법륜) ‘수자타 아카데미(Sujata Academy)’를 전격 방문하여 법회를 열었다.

성하의 이번 수자타 아카데미 방문은 작년 설성봉 거사에 대한 총격사건 후 성

하께서 JTS를 방문하실 의향을 비추셨던 것에 힘입어, 금년에 ‘정토회’와 ‘인도 JTS’가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어 불교성지 전정각산의 불가촉 천민들에게 자비를 전해주시라는 취지를 전하여 JTS 사업장을 방문하시게 된 것이다.

오후 2시쯤 도착한 성하 일행은 바로 인도 JTS 법당인 전정각사(前正覺寺)로 들어가 참배하고, 1주기를 맞아 새로이 조성된 고 설성봉 거사의 추모비에 헌화하고, 보리수를 기념 식수하였다. 이어서 성하께서는 이날 새로 개원되는 ‘수자타 기술학교’ 교정으로 가서 완공을 나타내는 초석을 제막했으며, 이미 기다리고 있던 3,000여 인도, 한국, 티벳의 사부대중을 위해 수자타 기술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셨다.

법륜스님은 다음과 같이 환영의 말씀을 전하셨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고행하신 곳이기도 하며 지금도 더러운 곳, 버려진 곳이라 여겨지는 이 천민마을에 성하께서 직접 방문해주셔서 이제 이 곳은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이 곳 학생들을 대신하여 성하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곳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사를 마친 법륜스님께서는 나무로 조각된 ‘부처님 고행상’을 성하게 증명하시며 법문을 청하셨다.

성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해 인도의 오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의 진실한 후원 역할을 해 온 인도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12일에도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오전 8시 30분부터 작년 1월 무장강도들의 총격으로 돌아가신 고 설성봉 거사를 위한 천도제가, 오전 9시부터는 정신적 지도자 라마 조파 린포체(Lama Zopa Rinpoche)께서 참석한 가운데 설성보 거사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린포체와 동행하신 티베트님들 외에 수자타 아카데미 전교생, 전 인도비구승가(All India Bikku Sangha)의 인도 스님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는 정도회 성지순례단과 유족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추모행사에 이어 10시 30분부터는 2000여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 등게스와리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책임질 '수자타 기술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8간의 2층 분홍색 기술학교 건물은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컴퓨터실, 재봉실, 도서관이 오픈 되었다. 주빈으로 참석한 조파 린포체는 영어로 행한 연설을 통해 빈곤의 땅에 심은 한국인들의 자비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동안 같고 닳은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민속 무용과 태권도 시범이 펼쳐져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뒤이어 '수자타 아카데미 9주년 기념식'이 치러졌다. 개교 9주년 기념행사에는 지난 10여 년 간 인도 JIS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전 현직 수자타 아카데미 선생님들, 각 마을의 유치원 교사들과 마을리더들, 사업장 부지를 기증해 준 마을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날의 마지막 행사로 'JIS 청소년 노동학교' 학생들이 손수 지은 아자드비가 마을의 유치원 개원식이 성지 순례객들과 마을주민들, 유치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하는데 그 동안 도와 준 수많은 후원자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도움을 바란다.





당당한 인도의 한 역군으로

이화승/ 인도 JTS 사무국장

제가 인도에 온 지도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나갔 습니다.

등게스와리에서 우리 JTS 사업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자타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교육만 우 리가 직접 가르치고, 중, 고등학교는 근처 소에히 푸르 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수자타에서 가르치기 로 하였습니다.

리더 그룹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후 자신 들의 수업을 하기 전에 4개 직영유치원으로 가서 후배들에게 힌디와 산수,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에 돌아와 식사를 한 후 공부를 합니다.

3-5학년 정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하거나 가사 일을 돕는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 는 것을 염려하여 2001년 가을에 청소년 노동학교 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농동을 하고 일정액 의 임금을 받고 토요일에는 힌디, 영어, 일반상식 을 배웁니다.

불과 5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자드비가 유치원' 을 직 접 짓고 개원하였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 우리 노동학교 학생들 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바카 병원은 일반 치료만으로는 이 등게스와 리 지역의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어, 시급한 결핵 부터 퇴치해 보려고 열심히 환자를 모으고, 검사

하고, 가정 방문해서 투약하고, 영양상태가 안 좋 으면 밥도 주고...

현재 6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마을개발 팀은 8개 마을 유치원을 운영하고, 어 린이들 힌디 웅변대회, 문맹인 어머니들에게는 힌 디 수업,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JTS배 쟁탈 축구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마을에 공동으로 해야할 우물 주변 플랫폼 만들기, 펌프 옆에 공동 목욕탕 만들 기, 마을 정자나무에 플랫폼 만들기 등을 주도합 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좀 신나는 학교를 만들 어 보자고 태권도, 음악, 미술, 체육부를 신설하고 한글도 가르칩니다.

작년부터는 전통음악, 무용반을 만들어서 아이 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을 사업 영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각 마을에 있는 직영, 관영 합한 12개 유 치원에서 기본 문맹을 퇴치합니다.

문화반을 더 보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학년 정도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노동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8학년을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직업기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곳의 현실은 10학년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 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컴퓨터, 영어, 한국 어를 기본 필수 과목으로 전기, 목공, 미장, 폐인

트, 농업, 축산업, 요리, 재봉, 간호과정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학교를 졸업하면 JIS 자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이고, 다른 현지에 나와있는 외국 기업에도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바카 병원은 결핵퇴치는 물론 소아마비, 나병퇴치, 모자보건 사업들을 더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개발 팀과 협력하여 수질개선과 보건교육을 통한 질병 예방, 가족 계획



등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원 건물의 남은 공간에 만화와 짧은 계몽의 글을 넣어서 대부분이 문맹인 이들이 위생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월에는 그간 조사한 마을의 우물, 펌프 현황을 토대로 각 마을 실정에 맞게 우물과 펌프를 개발해 줄 생각입니다.

현재 각 마을 인구조사와 마을지도 그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현황을 정확히 알게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보다 더 계획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요.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인도인만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모르기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보드가야를 찾아온 외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계스와의 현장을 방문하고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험한 마을에 겁 없고 용감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에...

보드가야에는 외국인들이 지원하는 NGO가 많이 있어, 이들과도 서로 교류하여 보드가야만 나와도 기가 죽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자타 아카데미 출신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당당한 인도의 한 역군으로 자리 매김 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위로 인한 재난

스위티/ 인도인 자원활동가, 마을개발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JTS에서 마을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스위티입니다. 마을개발에서는 8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주로 마을을 방문하고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마을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매주 유치원 선생님과 마을 유치원 책임자들에게 마을 운영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앞으로 해 나가야할 일을 함께 구상합니다. 마을 유치원은 마을 선생님과 책임자들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재미있지만 기쁨은 힘들기도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만날 때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과 기쁨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2달 동안 수확 철이라서 매우 바빴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사는 잘되지 않았습다.

올 겨울은 정말 유난히 추웠습니다. 102년만에 찾아온 추위라 합니다. 추위로 인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람이 많이 불고 태양은 지붕 꼭대기만 잠시 비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두터운 옷은 없고, 땀수 없기 때문에 심한 독감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가슴이 아파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침대 밑에 불을 지펴 놓았다가 화상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동물들도 강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마을을 지나다 보면 두터운 옷이 없어서 얇은 옷을 걸치고 추워서 덜덜 떠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눈에도 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한국인 실무자와 범룬스님도 안 계신 성지순례 기간에 다친 일 있어서 저 혼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한파 피해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친 범룬스님께서 한파로 죽은 사람이 있는 가정과 가장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100여개의 담요를 나누어주니 어떤 사람들은 추위로 인한 자신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영영 울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훨씬 더 추운 나라이지만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 이 정도의 추위로는 사람이 동사하지는 않지만,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추위가 짧아서 집안에 난방 시설이 전혀 없어 두터운 옷과 솜날 덮고 살기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룬스님도 처음 겪는 일에 미처 준비를 못해, 다음부터는 이런 추위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두터운 옷과 담요를 준비해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누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JTS가 이 곳에 없었다면 저는 슬픔으로 더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는

병원 업무중에 1주일에 한번씩 마을로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발, 바느질, 손톱을 깎아 주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즐거웠다.

두 달 전에 만코시힐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여자가 머리랑 목에 전부 자카(중기)가 생겨서 병원에 왔었다. 너무 심각해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두 번째 또 삭발을 하고 치료를 해 줬는데 그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병원도 멀고 치료해도 아프기만 하고 낫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소독은 못하더라도 연고는 발라야 된다고 피부질환 연고를 주었다. 주면서 제대

로 씻지도 않는데 잘 바르거나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전 청소년 워크캠프 팀이랑 만코시힐에 드레싱 나갔다가

그 꼬마 애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머리와 목을 살피니 머리는 완전히 나았고 목뒤에만 약간의 자카미 있었다. 정말 기쁜 마음에 옆에 계셨던 사드나 씨스터에게 보여주었다.

- 7.16.17 병원 자원봉사자 고민희 -



지난 해 11월부터 각 마을에 우물과 핸드펌프 사정을 조사하였다.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마을들은 우물과 핸드펌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만코시힐에 우물 조사를 나갔는데 우물은 하나도 없고 핸드펌프만 있었다. 바로 산 밑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핸드펌프를 파도 너무 깊이 파야하고 물을 길 때 힘도 들지만, 고장도 매우 잦다고 들었다. 그 마을에 있는 4개의 핸드펌프가 전부 고장이어서 마을 주민들은 만코시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다. 건기 때는 이 우물마저도 말라 2km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이용한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다행히 JIS에서 지원해서 핸드펌프가 빨리 고쳐졌다. 지난 1월 1일에 전장각산을 올라가 보드 가야로 가는 길에 만코시힐을 지나는데 핸드펌프로 물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기쁘고 내가 여기서 일한 보람을 느꼈다.

- 마을개발 자원봉사자 최용석 -

* 고민희님, 최용석님은 6개월 자원봉사를 마친 7기 세계청년봉사단(KOPION)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북한에서도 때때옷 입고 인사 가네요.

박지나 / (사)한국제이티에스 이사

2월 13일에서 14일까지 짧은 기간동안 박지나 JTS이사님께서 라선을 방문하고 오셨다.
다음의 내용은 JTS 이지현국장이 박지나이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바쁜 일정으로 피로하셨음에도 밝게 웃으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해주셨다.

■ 한국은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꽤 풀렸습니다. 북한은 어떠하나요.

두만강을 건너 북한 국경으로 건너갈 때 물아치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북한에 들어가니 난로도 없고 정말 발이 시렸습니다. 다행히 라선시로 들어가니 전날에 무척 추웠다고 하는데 도착한 13일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며칠 전 추운 날씨에는 바람이 심해 길을 지나가던 여자들은 서있는 나무를 잡고 있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선 JTS 어린이 영양식 공장에는 쌀 38톤과 옥수수 12톤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들어갔으며, 겨울 내 공장 가동의 상황과 남아있는 영양식 원재료와 지난 1월에 보낸 밀가루 60톤이 잘 배분되었는지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청진고아원에는 지난 1월에 밀가루 60톤에 이어 이번 12월 13일에 밀가루 100톤을 회령을 거쳐서 청진으로 물자가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장에 들러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 분유를 제외하고는 설량은 남아 있고, 이번에 쌀과 옥수수도 2달치를 가지고 가서 2달간 사용할 물량은 충분합니다. 또한 공장 안에는 5kg짜리 영양식 봉투를 6봉지씩 담은 마대가 많이 있어서 최근의 공장 가동의 상황을 엿볼 수 있더군요.

겨울철에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평상시 보다 공장 가동을 반정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 날씨가 좀 풀리면서 제대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요즘 정말로 식량난의 상태가 좋지 않은가요.

만났던 사람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말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3월 이후부터 춘궁기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농사철에 갑자기 냉해가 들어서 수확이 줄고, 겨울에 전기가 없어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호텔도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 방문하신 탁아유치원은 어느 곳이었고,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난 11월 방문했던 호텔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숙소에 머물렀는데 발이 미지근할 정도만의 난방이 되었고, 그것도 새벽녘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몹시 추운 방에서 보냈습니다.

추위로 인해 유치원들은 주로 방학중이었고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야 하는 탁아소는 거의 다 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탁아소 중에서 창평탁아소와 백학리 탁아소 2군데를 둘러보았다. 난방 상태가 좋지 않아서 1-3세 정도 어린이 방은 약간 미지근하였고, 4~5세 되는 어린이 방은 거의 온기가 없어서 본인(이사님)도 무척 발이 시렸습니다.

■ 아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아이들의 모습은 밝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라선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은 다른 곳보다도 평균 체중 및 신장이 높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느끼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의 아이들 같이



튼튼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어리지만 인사성이 밝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고 춤과 무용이 뛰어나더군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창고 충실해 보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JTS가 북한에 보내는 물건이 최상의 품질이어서 담당자들이 정말로 고마워했고 올 1월에는 라선과 청진에서 JTS에 연하장을 보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라선에서 나오는 날이 14일이었는데 북한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때때옷을 입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부산히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 저기에서 눈에 띄었고, 대부분이 길이 얼어 있어서 종종 걸음을 치며 가는 모습이 무척 정겨워 보였습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올 한해 더 나은 생활이길 기원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업계획

유정길 / 아프가니스탄 카블 지원팀장

1. 기본방침 - 마을 지원을 위한 우리원칙

- 모든 작업은 마을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일로 한다.
- 학교와 소형댐 공사는 마을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그 과정 속에서 마을주민들의 협동과 활력, 이후 새로운 마을개발을 하기 위한 정신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는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한다.
- 노동하는 사람에게 하루치의 식량을 제공한다. (밀가루 5kg)



2. 카블 근교 사업

1) 툽다라 지역사업

① 지역현황

툽다라는 스투파(탑)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을로 하산다라의 위쪽, 빠르완주 차하리카르에 있는 큰 마을임, 탈레반이 스투파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② 그간의경과

- 마을대표와 주민들이 우리의 조건에 동의하여 학교와 댐 짓기로 하고 현재 마을주민 대표 명의로 JIS에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 우선 학교의 12개 교실공사를 먼저 착수하고 이후에 댐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 2월 중순부터 작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50명의 마을인부명단을 보내왔다.
- 중앙의 교육청의 승인이 났고, 지방교육청에서 부지를 제공하였다.
- 툽다라 마을 300m 앞 부서진 스투파(탑) 근처 4,200m×5,800m 제공하였다. (1월 27일)
- 마을주민들은 적 벽돌과 돌로 공사하고, 지붕을 양철지붕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 현재 다른 학교공사의 실태와 방법, 자재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 1월 22일 650개 옷을 분배하였다.

③ 향후 계획

- 2월 15일부터 10개 교실과 3개교무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45월부터 댐 공사 시작할 예정이다.
- 불교적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이에 상주하면서 학교공사와 댐 공사를 착수한다.
- 이후에 우리의 거점마을로 집중 지원하는 것도 고려한다.
- 현재 마을에 옷 분배를 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주 정부에서도 학교 부지를 기증하였다.
- 여름에 학용품과 신발 등을 나누어주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 기타 지역

- 하산다라 지역은 1차 답사때 결정된 시립이었지만 다른 NGO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학교나 학용품지원이 가능하다.
- 사카르다라 지역에 병원(4개의 방) 짓는 것과 학생들에게 학용품지원 계획이다.
- 야크다라(또다른 스투파가 있는 지역)의 모모제학교의 학용품을 지원한다.
- 주인집 농장근처의 학교에도 학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카블 시내에서 여성, 과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방과 교복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 카블근교 툼다라(빠르완주)의 학교 건축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하산다라, 사카르다라가 있는 카블 주, 주인할아버지의 학교가 있는 와르다주, 카피사주의 코이스탄, 그리고 로가르주와 가즈니주 등 인근 5개주에 학교를 짓는 일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3 칸다하르 지역사업

1) IDP 캠프 텐트학교 운영

- 칸다하르 근교인 뻬즈웨이에 텐트학교 운영한다.
- 교사는 인근마을 학교의 상급생들이 수업 후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사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풀타임 교사는 2명 정도 해서 진행한다.
-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하고, 상급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텐트학교의 글자와 산수를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는 자리다스지역에 상주하면서 문맹퇴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니세프나 UNHCR의 지원을 받을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할 수 있다)

2) IDP 캠프 주위 무너진 학교 보수작업

- 난민지원을 하면서 난민들에게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투루칸 지역에 교실6개와 교무실2개로 8개의 학급을 교실을 짓게 한다.(허물어진 곳에 돌을 쌓고 흙으로 덮어 수리작업을 한다. 더 짓는 것은 마을사람의 참여에 따라 판단)
- 장기적으로 칸다하르에서 한시간에서 최대 2시간 정도의 거리의 다른 주와 카블과 칸다하르 사이에 학교 보수작업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3) 학용품 지원과 IDP 캠프 내에 재봉교실 운영

- 캠프내에 여자들을 상대로 재봉 교육을 하고 만들어진 교복을 주위 학교에 지원한다
- 참여하는 여자들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아프간의 꿈과 희망이

이동하/ 자원봉사자,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처음 인도, 아프간 간다고 하였을 때는 정말 가는구나! 드디어 아프간으로...하며 좋아했다. 작년 여름 워크캠프 때 땀흘리며 지은 샤워실과 우물 플랫폼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시 만날 바가히 마을 친구들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갈 수 없는 많은 장애로 가득했다. 부모님의 극구 반대와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던 문제, 그리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인도에서의 첫날 밤. 켈커타의 한 사원 옥상에서 우리는 나누기를 하였다.

수자타에서 입재식을 하고, 시작된 행사 준비는 4일 동안 계속 되었고, 그동안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행사기간에 달라이라마가 직접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행사를 빛내 주셨다. 12일 밤 가야 역에서 기차로, 버스로, 택시로 인도 국경에 이르렀고 카슈미르 분쟁으로 긴장감이 있을 거란 우리

들의 생각과는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서 아프간 비자를 받고 17일 아침 우리는 아프간 국경으로 향하였다. 아프간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하심이라는 아프간인 한 명과 같이 이동하였다. 전쟁 중에 어머니와 아이를 잃으셨다는 이 분 눈가의 주름이 전쟁의 아픔을 상기시켰다.



아프간 국경에서 이마 깊숙이 패인 주름과 경계하는 눈빛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 봉고 차 속에서 보니 도로는 아직 미 포장이고, 왼쪽은 10여 미

터 되는 돌로 된 언덕들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고, 그 사이 사이 돌이 패인 자국들은, 사람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아마 전쟁이 일어날 때 피난처로 쓰였을 거란 생각과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과 총알이 빗발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오른쪽에는 긴 강줄기에 물이 흐르고 푸른 밭도 볼 수 있으며, 저 멀리서 힌두쿠시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

져 있었다. 오랜 가뭄으로 물이 한 줄기도 없
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이 흐를 줄이야.

아프간의 꿈과 희망이 보이는 듯 우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 그러나 칸다하르
밀에 있는 지역은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저녁 늦게
도착한 카불의 밤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다
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옷과
이불을 분류하는 작업을 이틀을 하였고 3일
째는 정성스럽게 포장작업을 하고, 잠시 틈
을 내서 근처 학교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전
쟁으로 남편을 잃고 집이 없는 여인들이 아
이들과 함께 힘겹게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 안을 둘러보았는데 벽에는 총탄자국
이 가득하였고 탄피가 아직도 선명하게 벽
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안내인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벽면에 그림을 그렸는데 비행기와
탱크들이었다고 한다.

전쟁의 아픔들을 안고 살아갈 이 아이들
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을까? 가슴이 매여 왔다. 우리는 옷
가지와 생필품(수건, 칫솔, 치약)을 나누어
주니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행복했
다. 이 옷들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
사한 마음이었다.

이 곳 사람들은 구호물품으로 그리고
NGO에서 주는 약간의 일감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가족 중 1-2명이 파키스탄에서 일해
서 그 돈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4일 째 우리
는 ‘툽다라’ 지역으로 가서, 준비한 옷가지
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분배하였다.

앞으로 댐 공사 및 학교를 만들 예정 장소
이다. 차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 저 멀리 많은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탑을 보기

위해 마을 리더 몇 분과 함께 산을 오르니,
정말 웅대했고 탑 너머로 보이는 흰두쿠시
산맥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연출했다. 탑
은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도굴된 흔적이
라고 한다.

탑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와 같은 걸로
층층히 쌓아서 우아한 무늬를 장식했다. AD
3-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만든 이의 장
인정신이 느껴졌다.

우리가 내려올 때쯤 옷을 실은 트럭이 도
착해 있었다. 짐을 내리고 이름을 한 명씩 호
명하며 옷을 차근차근 분배했는데, 받아 가
는 모습들이 꽃이 활짝 피듯 화사했다. 포장
지를 뜯어서 옷을 걸쳐 보면서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하듯 한번 몸을 돌려보기도 하였
다. 좋아하며 기뻐하는 그들을 생각하니 3
일 동안 해온 작업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도로 양쪽에 하얗고 빨간 표시
등이 칠해진 돌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하
얀 색깔로 칠해진 돌은 제거된 지뢰 위치고,
빨간 표시는 제거해야 할 지뢰를 표시해 놓
은 거라고 한다. 걸으려는 평온하게 보이지
만 사실 길가에 발 한 발짝 내밀기도 힘든 지
역이다.

5일에 우리는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아프
간 친구들과 서로 몸을 부딪히며 축구 시합
을 했는데 금방 친해졌다. 전쟁으로 고통받
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밝고
따스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다시 축구시
합을 하기로 약속하며 헤어졌다.

아프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에게도 깊
은 마음의 울림이 일었다. 이 땅에 다시는 전
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리라!

물품 모으기에 여념 없는 대구정토법당

세상을 본래 아름다운 곳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도 정토회 대구정토법당 활동은 색색으로 피어난 꽃들의 합창 같다. 대구정토법당은 대구 수성구 수성3리에 위치하며 50명에서 100여명이 모여 정토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몸짓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만난 2002년 활동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리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송창원(법운)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인도와 아프간을 돕기 위하여 후원금을 모았던 일, 생활필수품이 모여지는 대로 보냈던 일, 북한 여성들을 위해 먼 생리대천을 보냈던 일, 아프간 겨울나기를 위해 헌옷을 모아보냈던 일들... 재미나게 진행되었던 일들이 하나, 둘 생각납니다.

■ 모금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늦가을 온갖 고목에 핀 단풍들 속의 유서 깊은 대 가람 청도 운문사에서 정토 알리기와 모금 활동이 있었는데, 모두가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들을 후끈하게 채워 법당으로 돌아와 서로 자랑하고 격려했던 일입니다.

인도 등계스와리 지바카 병원에 약품 보내기 모금 운동을 펼쳤는데 동대구 역 대합실에서 불법이라며 신고 받고 단속하러온 경찰들을 모금하게 하고 격려 받고 온 우리 주간반 보살님들의 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년 말 한밤의 불야성 이루던 동성로에서는 야간반 거사님, 보살님들과 진부홍 모금함을 들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 함께 활동한 고마운 이들은...

한해를 보내며 떠오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로 활짝 웃으며 우리 거사님들을 거리로 내몰던 최정희(반야심)님, 여럿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뻛고 이제 세밀하게 마음이 보인다는 대구법당 왕고참 김창심(무진덕)님,

정도에 온 몇 개월 동안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신참 황영진님, 내 모습 여실히 보게 되었다고 기뻐

하시는 박상호님,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또한 내려지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김광선님, 처음 모금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모두가 좋은 사람뿐이라는 모금을 통달한 이태화님,

내가 너무 잘난 체 하고 있다며 할 일은 모금하면서 숙이는 일이라고 2002년 10월부터 3년간 하루 한 시간씩 모금하겠다는 원을 세워 행하고 계신 임은숙(대승광)님, 돈이 없다고 미안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40원을 주던 그 여고생들이 예쁘고 고맙게 느껴지는 내 모습 등...

■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아하! 세상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배고프고 병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도반들과, 활짝 웃으며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운문사 모금활동을 마친 대구법당식구들



성금으로 마련한 인도 수지타기술학교 컴퓨터실



아내의 귀가

차재현/ 회원, 진단 방사선 전문의사

아내가 현관문을 들어설 때 사뭇 놀랐다.

1월의 추운 날씨 속에 며칠 집을 비웠다가 해진 저녁 귀가한 아내를 보자 두 아이는 환호성을 지른다. 코끝이 빨갱게 얼어붙은 아내는 연신 미소지으며 입을 열지 못한다. 입이 추위에 얼어 발음하기 어려울지 웃기만 하다가, 말문을 연 그녀의 얼굴에는 벌써 아이들이 뛰어 올라 서로 몸을 비비고 있다. 10년 넘게 부대끼며 살아온 지라 그녀의 미소와 채취에는 익숙한 내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아내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환한 미소는 사뭇 달랐다. 분명 무엇인가 소중한 결실이 있음 적하다. 무엇을 얻었을까.

아무튼 너무 예뻐 보인다. 그녀의 안정된 마음의 파동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다.

“잘 지내다 왔어?”

아내는 무슨 일인지 시름시름 고민을 하더니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닷새 전 새벽, 집을 떠났다. 문경수련원에서 주관하는 “깨달음의 장”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며칠 전부터 하더니 부스스한 얼굴로 집을 나섰었다. 추운 날씨에 산중에서 수련을 한다니 몹시 궁금하고 걱정이 되던 터였다.

“고생 많이 했겠네 추워서”

“고생은 했지만 귀한 시간이었어”

겉옷을 벗으며 차분히 말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아직도 환한 미소가 남아있다.



“정신과 의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산의 정기가 대단한 모양이네.”

놀리듯 던진 나의 질문에 아내는 웃기만 한다. 실은 아내가 집을 비운 동안 나도 수련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왜 산에 갔는지 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나

의 잘못은 무엇인지 등등 그 동안 아내에게 해왔던 나의 불찰들을 되짚어 보았다. 생각할수록 아내의 고민에 자리한 나의 잘못들이 커져만 가고 불편했다. 그 책임감을 벗고 싶어하였을까. 스스로 성찰하여 번민을 해결하고 귀가해주기를 바라왔던 것 같다.

“강의를 받았어?” “토론을 하는가?” “몇 사람이나 왔었어?”

연신 묻는 말에 대답이 없다.

“당신도 다음에 가봐요. 그 곳에서 있었던 일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도움이 안되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즐거운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다.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우리는 추운 바람을 가르며 귀가하던 그 날을 이야기하곤 한다.

아내가 수련 중에 보았던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인 (사) 한국제이티에스 홍보 비디오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가. 그 인연을 곱씹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음의 풍요

이상만/ 자원봉사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오늘은 사회봉사의 주어진 30시간을 마친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장시간(?) 노동의 피곤함 때문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앉을 곳이나 기댈 곳을 찾았지만 오늘은 앉을 자리가 있었음에도 그냥 서서왔습니다. 사회봉사를 끝마쳤다는 홀가분함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그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친구녀석을 따라 처음 온 날...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조차 몰랐던 나는 봉사활동 첫날부터 '이건 아닌데' 하며 원래 생각했던 기대치들과는 다른 것들에 약간의 실망을 하면서 돌아갔었던 생각이 납니

다. 지금 생각하니 피식하며 웃음이 나네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교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때는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게 되고 또 스스로 찾아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학점 따기에 바빠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제가 참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무보수임에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학점이수에 급급한 어찌 보면 속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반갑게 그리고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챙겨주시던 선생님과 정확한 성함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범우님들...(답에 가면 성함부터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좋은 인연' 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후원 명단의 주소록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거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30시간 동안의 '값싼 노동(?)' 의 대가가 '마음의 풍요' 라는 값비싼 가치일 줄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해줬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의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답에 뭘 때까지 모두 Happy & Peace 하시길 바랄게여...

사족 : 사회봉사하면 아직 한번도 식당에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답에 가면 꼭...

오늘 들고 왔던 꽃꽂이 네석(돼지 저금통)은 제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달라이라마성하수자타이카데미 방문

2003년 1월11일 수자타이카데미를 방문해 고 설성봉 거사님의 추모비에 헌화하고 보리수를 기념 식수했다.

그리고 성하를 보기 위해 모인 2000여명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고 설성봉거사님 추모식

2003년 1월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작년 1월 무장강도들의 총격으로 돌아가신 고 설성봉 거사를 위한 천도제가 봉행되었다. 아카데미 전교생과 인도 스님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는 정도회 성지순례단과 유족대표들이 참가하였다.



● 인도 수자타이카데미 기술학교 준공식 및 수자타이카데미 9주년 기념식

2003년 1월12일 등게스와리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책임질 '수자타 기술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8칸의 2층 분홍색 기술학교 건물은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컴퓨터실, 재봉실, 도서관이 오픈 되었다.

지난 10여년간 인도 JIS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모두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의 고전 무용과 태권도 시범은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많은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 세계청년봉사단(KOPION) 8기 파견

세계청년봉사단(KOPION) 8기 단원들이 최종 선발되어 인도제이티에스로 5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정도회관에서 숙박교육을 마치고 28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 5명은 약 6개월간 등게스와리 지역 수자타이카데미에서 교육, 의료, 사무, 마을개발 등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예정이다.

북한 지원 사업

● 2월 지원 물품

한국제이티에스에서는 2003년 2월에 북한 정진지역에 밀가루 100톤과 한국의 실버캐릭터라는 단체에서 후원한 유아용 신발 약 18,000켤레를 지원하였으며, 라선지역에는 영양식 재료인 입쌀 38톤과 옥수수쌀 12톤을 지원하였다. 박지나 이사님은 2월 12일-15일까지 라선지역의 어린이 영양식 공장과 창평유치원, 백학탁아소등을 방문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소식

● 정도대학생 아프간 가다

지난 2003년 1월13일 인도 가야역 출발하여 파키스탄을 거쳐 17일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정도

대학생들은 사무실에서 18일부터 옷 분배를 위한 분류작업(이불, 옷, 여성, 남성...) 및 포장 작업을 하였다.

● 아프가니스탄 카불 부근 지역에 옷 분배를

지난 2003년 1월25일 아프가니스탄 하산다라에서 350가구, 사카르다라 200가구 주민에게, 카불 시내 난민들께 옷 분배를 하였다.

앞으로 불교 유적지가 있는 탐다라 마을에 학교건립과 댐 공사를 할 예정이다

30일 정도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다.

2월12일자 현대신문에도 기사가 나와 많은 이들이 성금을 내셨다.

● 인도 한파에 대한 성금 모으기

지난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갑자기 인도에 한파가 와서 죽어 간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이들이 성금을 모아 주어 마을 주민에게 담요를 나누어주었다.

국내 사업

● 구룡사 정우스님, 국회의원 김민석님 수자타이카데미에 다녀가다

지난 1월 정우스님과 김민석님이 수자타이카데미를 직접 방문해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내셨다.

● 유정길님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와 현대신문에 아프간 사업에 대한 기사



지난 2003년 2월5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오후5시~6시)' 에 나와 그 동안 활동보고와 앞으로 사업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였다. 2002년 10월14일 인도 델리를 거쳐 아프간스탄에서 4개월간 활동하신 유정길(법명 법사)님이 2003년 1월



● 실무자 현장으로 출국

2002년 2월14일 정도회 정기총회 차 참석했던 아프간 현장 책임자 유정길님, 이덕아님이 아프간으로, 2002년 2월17일 사무책임자 장영주님, 자원봉사자 조영옥님은 인도로 출국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부서간의 교류를 위해 2번에 걸쳐 사업 보고회가 있었다.

● 기차길 옆 작은학교에서 성금을 내다.

"괘이부리말 아이들"의 동화작가 김중미님이 운영하는 공부방 기차길 옆 작은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278,350원이 아프간사업에 쓰라고 국민은행으로 입금되었다. 인천시 만석동에 있는 이곳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다.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 강성숙211-11593-11
- 이미리211-11594-11
- 조경래211-11596-11
- 박덕환211-11597-11
- 김동욱211-11603-11
- 진순덕211-11604-11
- 이형래211-11606-11
- 정필영211-11615-11
- 안병주211-11617-11
- 서연수211-11616-11
- 눈물최동211-11619-11
- 강세환211-11620-11
- 고춘옥211-11621-11
- 강지나211-11622-11
- 장금옥211-11623-11
- 박영주211-11624-11
- 강옥자211-11625-11
- 김종길211-11626-11
- 조정규211-11628-11
- 김승이211-11630-11
- 정현숙211-11631-11
- 김향준211-11634-11
- 이영지211-11635-11
- 정훈영211-11636-11
- 장윤식211-11637-11
- 조명지211-11639-11
- 오욱진211-11641-11
- 박용매211-11642-11
- 박주영211-11643-11
- 김세열211-11644-11
- 신영애211-11645-11
- 박윤경211-11646-11
- 최정애211-11647-11
- 김미련211-11648-11
- 이선이211-11649-11

- 정용선211-11650-11
- 소현아211-11651-11
- 김애리211-11653-11
- 김한기211-11652-11
- 트라이엑스211-11654-11

인도 어린이 결연

- 유이나111-02890-14
- 유삼현111-02946-14
- 윤인혜111-02890-13
- 배은영111-02947-14
- 김경희111-02892-14
- 이중세111-02949-11
- 김종한111-02893-14
- 유현미111-02948-11
- 이난숙111-02894-14
- 김재영(3)111-02950-14
- 남호정111-02895-14
- 송민석111-02951-14
- 정봉옥111-02898-14
- 이석정111-02952-14
- 강선희111-02898-14
- 이홍락111-02955-14
- 정용화111-02900-14
- 한광수111-02953-14
- 허필숙111-02901-14
- 곽웅철111-02954-14
- 조성은111-02902-14
- 장부영111-02959-14
- 성현철111-02903-14
- 설상수111-02960-14
- 마해옥111-2904-14
- 박영숙111-02962-14
- 하경희111-02907-14
- 신현진111-02963-14
- 종우스님111-02908-14
- 진순덕111-02909-14

- 이연재111-02910-14
- 이새은111-02913-14
- 김소정111-02917-14
- 고석복111-02919-14
- 최운정111-02921-14
- 최운석111-02922-14
- 전성호111-02924-14
- 허명혜111-02925-14
- 이경섭111-02926-14
- 황 제111-02927-14
- 조순영111-02928-14
- 정윤업111-02929-14
- 박민아111-02930-14
- 백혜경111-02931-14
- 서형경111-02932-14
- 강유미111-02933-14
- 지성스님111-02934-14
- 김해경111-02935-14
- 이영자111-02935-14
- 윤정순111-02938-14
- 김일곤111-02942-14
- 김정준111-02943-14
- 옥영민111-02944-14
- 송정현111-02945-14
- 심정섭111-02964-14
- 신한섭111-02965-14
- 도인선111-02966-14
- 마혜옥111-02968-14
- 정미숙(2)111-02967-14
- 조영순111-02969-14

- 정필영311-00265-13
- 김도영311-00266-13
- 이현선311-00268-13
- 최우진311-00269-13
- 신상범311-00270-13

아프가니스탄회원

- 고행자511-00055-15
- 박봉순511-00059-15
- 김대일511-00060-15
- 최경희511-00061-15
- 박순혜511-00065-15
- 김종훈511-00066-11
- 이연순511-00067-15
- 조혜경511-00068-15
- 박재균511-00069-15
- 류혜원511-00070-15
- 류정원511-00071-15
- 류연우511-00072-15
- 박재균511-00069-15
- 구예모511-00073-15
- 주민호511-00074-15
- 강정숙511-00078-15
- 백은옥511-00079-15
- 윤병식511-00080-15
- 정성훈511-00082-15
- 박정순511-00085-15
- 최홍섭511-00086-15
- 김선미511-00090-15

결핵퇴치회원

- 한형석311-00259-13
- 이정운311-00260-13
- 조규선311-00261-13
- 서상철311-00263-13
- 이영희311-00264-13

단체결연

- 정창덕외6명212-011638-11

특별후원금

김기승, 김조은(농협) 1,000,000 임호순 100,000 차명정 10,000 황현심 100,000 연경자 24,000 박호관 100,000 조한백 50,000 김유경 500,000 전등서 150,000 이상연 100,000 김옥자 1,000,000 최정애 30,000 박갑영영기 20,000 정귀조 50,000 최병권 15,000 김순호 25,300,000 최유리 3,000 박선화 120,000 해탈심 20,000 박라영 300,000 김한별영기 300,000 김애리 300,000 황봉석 5,000 김승희 100,000 김태기 110,000 이성숙 100,000 정영숙 30,000 공동모금회 5,000,000 국민은행 대구상인동지점 300,000 남현모 1,000,000 김효은 100,000 이문재 60,000 익명 2,500,000 안병길 500,000 정양수 100,000 길춘란영기환갑 300,000 장금옥 10,000 김정숙 400,000 윤채희 20,000 안지혜 200,000 조허백 100,000 정도합창단 450,000 조재정 100,000 운문사학인스님 500,000 임예진 30,000 경주시민회관법회불전함 1,511,400 최해담, 강복래 1,000,000 이정숙 50,000 정남식 50,000 전우상 100,000 이경숙 50,000 오삼택 32,000 나찬분 100,000 권오웅 20,000 민한식 50,000 박규순 300,000 김동윤 1,000,000 운문사사집반스님들 413,000 청주아너리틀다회 1,000,000 권태순 50,000 김명환, 김량 1,800,000 최정애 30,000 이상연 100,000 신현중 300,000 박명주 300,000 성은정 50,000 이연재 100,000 이준석 60,000 박을순 200,000 정연준 30,000 배외선 200,000 정연박 30,000 김도영 300,000 박선영 20,000 박성연 20,000 김바다 50,000 박성년 100,000 박선화 120,000 홍성원 100,000 삼인출판사 40,000 김순영 250,000 안병주 100,000 정순선 1,000,000 이보라 490,000 최영화 100,000 국민대건축과동문 500,000 권태순 50,000 권오성 150,000 김수진 50,000 박용훈 1,000,000 최선혜 150,000 기덕규 160,000 기홍진 80,000 김용주 300,000 서부로타리클럽 210,000 정옥관, 백정순 1,000,000 신영미 150,000 황선옥외 160,000

물품후원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2월 6일까지 들어온 물품 내역입니다.

- | | |
|-----------------------------------------------|-------------------------------------------------------------|
| 1) 실버캐리터 유아양말신발 26,096켤레 52,192,000원 상당 | 22) 한국세링 Advantan 20, Travogen 20, Nerisona 20개 127,820원 상당 |
| 2) 삼남부러더미싱 재활용미싱 2대 200,000원 상당 | 23) 우연어패럴 리류 2,500,000원 상당 |
| 3) 주포메이트무역 재활용리류 5만피스 30,000,000원 상당(인도지원) | 24) 동학사 양말 46, 겨울남방 40 332,000원 상당 |
| 4) 영원실업 학생용가방 640개 3,200,000원 상당 | 25) 코오롱제약 의약품 304,520원 상당 |
| 5) 현대약품공업 강태풍 20통 600,000원 상당 | 26) 모나미 그림물감 300,000원 상당 |
| 6) 청안사 컴퓨터, 프린터 1셋트 3,000,000원 상당 | 27) 영진약품 사이크로손 100, 오피니제에스캡셀 3의약품 1,043,650원 상당 |
| 7) 아트모아 스케치북 1,500권 750,000원 상당 | 28) 알티엔 어린이리류 1,601장 108,728,000원 상당 |
| 8) 이공일공 문구류세트 376,320원 상당 | 29) 와와일공구 문구류일체 2,141,100원 상당 |
| 9) 세기밀리너 모자, 목도리 3,000장 9,000,000원 상당 | 30) 코러스제약 의약품 10 270,000원 상당 |
| 10) 이호순 노트6박스 600,000원 상당 | 31) 한일약품 비타메진에스탑 100, 포키시랩 500, 바나론크림 100 1,600,000원 상당 |
| 11) 알파니스트 패딩조끼 100장 2,800,000원 상당 | 32) 기화제약 지음강화탕 50통 1,300,000원 상당 |
| 12) 보영섬유 줄무늬티셔츠 1000장 6,000,000원 상당 | 33) 경남태권도협회 도복 20벌 |
| 13) 거진상역 미술교재 7박스 4,000,000원 상당 | 34) 천리교 수건, 양말 등 생필품 1박스 |
| 14) 금홍팬시 문구류일체 6,750,000원 상당 | 35) 해피랜드 유아리류 47박스 196,000,000원 상당 |
| 15) 프로베이비 어린이리류 85,973,200원 상당 | 36) 웅신양말 양말 5120장 13,960,000원 상당 |
| 16) 김응수 사물놀이 2세트 1,400,000원 상당 | 37) 영화직물 섬유 30롤 |
| 17) 최현규 치약 40 | 38) 운문사사교반 기벨티셔츠, 양말 등 1박스 |
| 18) 김희수, 송하경 멜로디노 6개 78,000원 상당 | 39) 운문사종우스님 수건, 내의, 양말 등 1박스 |
| 19) 자혜장학회 내복, 머리핀, 실내용, 운동화, 샌달 등 538,000원 상당 | 40) 광진자활후견기관 유치원기방 90개 |
| 20) 카프코리아 그림베레트 600개 600,000원 상당 | 41) 서울정보법당 우산, 양말 등 1박스 |
| 21) 동국무역 재활용형겜 28롤 | 42) 한희사 남아 런닝 98장, 팬티 5장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광주

강수민 6,200 강재선 3,580 거리모금 3,921,990 거리모금 400,990 거리모금 3,624,740 거리모금 147,690 거리모금 109,860 고은나 7,630 고재국 4,360 공택수 1,810 구영환 6,900 김다은 810 김새영 4,270 김선정 1,780 김성빈 5,410 김은주 2,670 김인태 6,840 김지수 3,950 김초롱 390 김현민 13,670 남도연 1,350 노단비 1,017 민다솜 4,760 박다연 15,660 박선화 2,570 박성훈 1,510 박실기 2,850 박훈열 3,240 손명진 6,370 아제아찌바라이제 181,310 이남궁 11,270 이흥현 7,000 이상욱 25,950 이주는 250 이한솔 620 입소미 6,690 임지는 5,240 정단비 1,650 정민우 7,050 첨단해물바지락갈국수 7,000 최준민 2,820 한승아 13,950 흥한비 1,870

■ 대구

강승화 16,950 거리모금 641,160 거리모금 575,460 거리모금 21,000 거리모금(무진덕,반야성) 351,740 거리모금(임은숙) 1,224,990 고글레 11,920 구산스님 56,300 권영순 17,140 권정숙 48,820 권희민 9,430 김건오 4,040 김순녀 22,450 김순란 39,910 김순희 16,700 김양모 79,500 김영수 19,840 김용이 7,410 김위숙 13,470 김정목 30,720 김희자 22,000 류시환 31,200 류재욱 26,480 문테소리 28,290 무주상 23,000 무주상 22,750 무주상 15,040 무주상26,000 무주상18,430 문영순 23,070 박만주 11,020 박정선 30,460 박정욱 22,100 박제준 6,950 박중헌 26,770 백유선 7,430 소창원 40,170 손영상 28,460 손익성 9,280 송영화 40,730 심보명화 45,900 안필순 12,200 염성태 4,500 우미향 36,450 이명식각 53,280 이성순 2,360 이재영16,720 이정연 32,080 이정환 19,530 이중학 26,080 이진훈 25,690 이화는 9,990 임은숙 23,030 장수인 23,090 전영희 21,740 정평화 8,000 정평화 30,950 조민수 24,060 조순옥 37,060 조영래 11,410 조진호 57,600 종우스님 44,070 최용곤 68,850 최정희 20,700 칠고대덕식당 18,490 탁정화 32,010 통일보시금 117,000 한성욱 26,410 한옥주 27,390 허춘자 54,700 흥관희 15,800

■ 대전

강한구 54,220 거리모금 2,732,460 거리모금 2,462,950 구명희 10,220 김남식 28,350 김영희 11,140 김옥선 82,370 김재은 22,420 김정환 14,720 김종복 10,860 김지혜 21,870 김창연 22,440 김혜진 4,680 니누리 23,200 니필원 18,490 남대전고1-4 24,250 남혜경 50,000 노경문22,190 대전보문초3-1 9,670 대전신봉초3-3 13,820 무명 20,920 무명 40,200 무명 16,050 무명 16,450 무명 5,700 무명 3,120 무명 10,540 무명 9,870 무명 3,690 무명 7,520 박총희22,630 박지현 29,900 배영미 24,310 법동초2-2 6,760 법동초3-1 35,320 보문초6-5 7,810 보문초6-8 3,900 서순임 16,950 심석영 58,160 심영숙 7,210 아리랑친구들 16,450 오명숙24,100 오세혁 세영 8,590 원유진 14,350 윤영희 15,660 이광길 19,350 이선미 1,950 이수진 13,420 이연화 21,320 이연화 10,280 이연화 15,970 이영자 16,440 이옥순 32,850 이정진 21,620 이주현 2,220 이지현 20,500 이충숙 17,610 이혜신 27,250 이호준,이수형 17,690 임경희 5,030 정영희 25,100 최민희 35,830 최민희 33,250 최영화 26,900 한발레츠 31,220 한발레츠 20,590 흥재식 55,800 흥재식 51,270 황귀숙 19,290

■ 독일

박정숙 204,294

■ 마산

거리모금 440,100 거리모금 1,346,560 거리모금 944,060 거리모금 33,390 거리모금 945,420 김동환 54,110 김동환,동재 37,400 김속자 28,750 김순임 13,910 김지훈 46,500 김춘부 10,100 김해중 26,130 김해중 38,910 노혜원 19,610 농협중앙회 26,670 동국제약 22,000 류동진 21,870 류승희 16,260 류재영 22,060 미신법당 92,350 무주상 228,520 무주상 32,910 무주상 6,970 무주상 28,040 무주상 15,040 무주상 18,070 무주상 34,310 무주상 23,460 무주상(4) 139,860 박기범 27,800 성경민 창훈 14,160 성현철 46,410 수진일 46,850 신 세권 36,410 신해임 23,710 안수영 4,600 안호건 5,050 양수용 13,830 우산택 19,850 우산택 27,190 원협33 번(윤) 12,850 원협33번기아 19,160 이상자 9,560 이용직 33,880 이현익 77,000 이호순 11,860 임채경 17,700 임재운 16,570 장찬희 12,760 전주영 11,480 조경순 3,070 조선이 18,910 조태환 49,800 지혜등 침묵회 19,910 진영생 16,900 차소연 재민 14,280 최미자 24,400 최미자 27,800 최영권 23,940 최재두 72,000 최태 련 33,390 홍수진,수연 23,600 황미선 32,220 황선옥 22,600 황은경 18,860 거리모금 737,770 주차상 24,360 뉴월드카서비스 5,960 유효열 28,830 이병수 13,350 무주상 19,140 이병주 11,730 진선화 33,730 최성열, 최순영 23,220 무주상 19,140 동국산업 13,310 해운초등학교 2-1 30,110 문암초등학교 15,070 금강어린이 집교사회 100,000 이광숙 54,060 무주상 24,520

■ 부산

강기령 75,000 강민지 5,360 강원자 44,000 강철원 25,700 거리모금 699,768 거리모금 353,490 거리모금 2,200,000 거리모금 240,000 구길용 49,970 김가영 19,350 김고미 2,800 김관형 12,060 김광현 6,760 김귀 순 38,200 김기호 8,860 김나영 3,930 김남순 49,630 김대한 3,260 김미숙 40,000 김민수 16,510 김민수 15,880 김민수 18,400 김선화 7,740 김수련 12,700 김시은 8,070 김여옥 27,350 김여진 1,360 김영희 44,460 김은수 김태진 23,380 김윤섭 2,490 김은혜 5,400 김인기 1,740 김인혜 8,400 김정숙 18,610 김종갑 34,950 김주자 32,550 김주현 3,820 김지성 10,290 김지은 10,820 김진욱 2,130 김철수 112,330 김초롱 630 김혜영 3,400 남형민 2,180 남형민 3,090 남혜민 2,450 도법문주 51,610 도상용 110,440 류영진 3,160 명곡지 18,080 무명 1,090 무명 18,120 무명 2,930 무명 21,700 무명 24,620 무명 12,800 무명 13,200 무명 20,410 무주상 5,640 무주상 13,280 무주상 35,490 무주상 10,640 무주상 22,030 무주상 900 무주상 46,810 무주상 3,990 무 주상 33,810 무주상 18,450 무주상 11,760 무주상 4,280 무주상 4,220 무주상 10,550 무주상 1,700 무주상 7,560 무주상 4,980 무주상 3,340 무주상 3,730 무주상 9,400 무주상 3,760 무주상 3,940 문상호 24,030 문상 호 2,050 문승민 1,040 문정자 18,250 문정호 10,130 미숙 나영 9,930 미스영 6,860 밀양지청 55,000 박기연 김성연 17,750 박경모 10,530 박다연 9,720 박문식 7,880 박성희 23,900 박소정 15,410 박수미 8,420 박수지 5,020 박순득 17,950 박유진 3,630 박재훈 3,720 박점숙 18,190 박점숙 890 박지형 25,100 박지훈 12,660 박 진경 13,440 박춘선 9,360 박현민 2,480 배근영 620 백민준 2,610 백인순 23,500 백점단 22,980 보광법우 15,870 산꼭대기 3,830 서귀옥 3,100 서은주 34,660 서은주 26,960 석옥중 35,610 성수민 3,700 성영애 33,560 손아림 20,880 송다미 김지원 9,300 송주희 3,050 신기훈 12,600 신상훈 22,380 신순말 18,010 신혜지 2,600 심미자 36,370 심지희 70,380 안혜진 7,500 양미란 6,480 양상훈 3,990 양선미 9,340 양재량 1,510 여 경자 74,700 오선티워 14,960 오영자 22,810 오유정 6,360 오윤석오준석 15,010 오은선 15,320 오은선 60,840 우연 11,770 유승희 12,010 육이정 7,090 윤유림 1,790 이경계 16,700 이경신 19,690 이경희 17,840 이민혜 5,990 이상수 20,320 이상현 1,760 이석순 35,000 이선경 심보이 13,700 이수나 5,960 이승준 2,950 이에지 이기희 1,700 이옥남 27,420 이은경 7,290 이은경 1,940 이인경 17,240 이종철 41,410 이종철 19,520 이주형 4,470 이준호 27,110 이지성 3,800 이지인 3,930 이필은 19,080 이한빈 9,100 이호정 2,770 임영섭 11,570 임 주만 11,540 장옥순 26,750 장진자 5,290 장진화 19,470 전선영 9,290 전민배 23,070 전현우 1,240 정경화 3,020 정귀순 8,320 정연지 13,310 정예지 860 정예지 15,870 정재영 22,550 정창민 3,770 조삼미 1,510 조영 순 38,860 조은진 3,340 조준영 9,940 조지영 4,980 조현록 2,550 조현숙 9,690 존이자 21,660 진오배 16,300 차성주 1,520 차순자 22,800 최고야 4,000 최광수 38,110 최광수 38,540 최귀옥 16,310 최순이 120,000 최은 진 2,220 최정숙 17,000 최정숙 49,160 최주화 3,350 최현섭 4,790 추병우 18,620 하성용 6,790 하성철 4,580 하영숙 33,660 학생 23,250 학생 15,850 학생 29,070 학생 22,780 학생 6,070 학생 10,800 학생 8,500 한광훈 6,050 한승희 6,590 한이현 5,080 한지원 8,980 한채은 7,650 한하늘 11,810 한희수 9,570 허명호 2,630 허애 경 31,150 허은실 2,830 홍상범 9,220 홍지연 23,940 황주성 29,250

■ 서울

강다연 2,960 강동균 6,150 강동호 13,750 강바람 20,570 강범구 12,200 강성모 5,680 강연주 3,310 강유란
 11,700 강재상 10,000 강정연 2,640 강정은 6,370 강줄기 21,000 강종익 25,770 강지영 34,680 강지영 68,000
 강혁 6,710 강혜인 2,160 거리모금 8,700 거리모금 16,100 거리모금 16,600 거리모금 17,910 거리모금
 25,900 거리모금 40,500 거리모금 83,840 거리모금 122,570 거리모금 139,800 거리모금 147,850 거리모금
 666,140 고범루 12,920 고영호 16,020 곽재현 14,330곽정인 3,390 권영준 1,900 권용근 5,600 권정원 39,400
 권재윤 25,520 김유빈 10,240 김경수 1,650 김경엽 3,800 김광선 10,130 김규찬 40,000 김기운 5,910 김동우
 5,690 김동희 6,210 김명성 4,300 김무진 13,950 김민경 2,270 김민석 26,050 김민준 9,050 김법석 13,290 김
 복경 20,780 김상훈 3,190 김세민 6,490 김세진 17,850 김소희 7,490 김수민 2,550 김수빈 5,550 김수현 5,920
 김승희 17,490 김시우 11,640 김시현 5,360 김아현 5,130 김애숙 11,680 김애숙 42,200 김애심 15,890 김애자
 14,960 김영도 69,980 김영선 15,680 김영인 15,240 김예은 12,680 김예지나 1,140 김예진 10,420 김용준
 8,980 김용환 6,710 김우서 15,600 김원지 9,750 김월금 15,620 김윤재 2,720 김은진 7,680 김응주 20,370 김
 인균 2,540 김장원 13,560 김재천 5,000 김재현 9,700 김정룡 3,000 김정숙 6,900 김정숙 10,000 김종숙
 14,540 김주성 16,240 김주연 5,830 김중서 4,480 김준용 27,110 김중주 5,090 김중주 21,930 김지영 4,080
 김지는 760 김지혜 7,120 김진연 8,240 김채수 5,630 김태균 21,810 김현수 21,450 김현아 12,000 김현호
 21,270 김형규 12,350 김형상 6,730 김형준 4,750 김혜나 12,200 김혜란 1,740 김혜련 20,000 김호중 25,830
 김홍길 17,370 김호근 10,970 김효정 32,470 김효진 11,310 김희원 1,310 김희주 4,980 나민주 3,460 나성준
 2,830 나주영 2,450 남궁여원 5,980 노기라 15,090 노민희 2,750 노승만 19,060 노연주 1,820 노옥재 29,310
 노원준 8,740 노윤아 13,560 노은서 2,970 노희진 3,480 노희진 9,670 도관 66,530 도예진 18,380 도하나
 6,250 동민 16,120 두진솔 6,230 류성호 20,680 무명 900 무명 1,110 무명 1,360 무명 1,400 무명 2,070 무명
 2,100 무명 2,700 무명 2,900 무명 4,000 무명 4,030 무명 5,400 무명 6,000 무명 7,060 무명 8,210 무명 9,410
 무명 10,000 무명 11,970 무명 14,290 무명 16,300 무명 16,350 무명 17,620 무명 17,770 무명 18,280 무명
 18,600 무명 19,220 무명 20,350 무명 20,470 무명 21,220 무명 23,010 무명 23,480 무명 23,670 무명 24,350
 무명 24,700 무명 27,580 무명 33,250 무명 33,270 무명 33,860 무명 35,140 무명 35,160 무명 35,350 무명
 36,560 무명 37,030 무명 41,790 무명 51,500 무주상 1,050 무주상 1,250 무주상 1,500 무주상 1,760 무주상
 1,810 무주상 1,900 무주상 1,910 무주상 2,020 무주상 2,140 무주상 2,200 무주상 2,770 무주상 2,860 무주상
 3,280 무주상 4,140 무주상 4,200 무주상 4,260 무주상 4,320 무주상 5,200 무주상 5,390 무주상 6,490 무주상
 6,650 무주상 7,350 무주상 8,470 무주상 8,880 무주상 11,990 무주상 12,050 무주상 12,410 무주상 14,620
 무주상 15,550 무주상 16,700 무주상 17,760 무주상 20,530 무주상 38,140 무주상 41,880 무주상 48,210 무주
 상 72,590 문영춘 18,090 문채원 1,970 문형근 23,690 민정희 15,240 민지은 7,580 민태림 3,360 박가람
 15,470 박경순 19,920 박동준 4,780 박동휘 41,260 박동희 29,230 박민신 13,270 박병일 24,050 박상현 1,460
 박성준 6,960 박성철 5,510 박세호 2,980 박소현 6,720 박수호 9,850 박승근 3,830 박시영 2,640 박시현
 5,030 박영규 5,740 박영준 32,010 박은지 9,430 박은희 1,660 박중수 23,330 박주원 15,510 박주은 4,730
 박준홍 35,050 박진우 25,700 박찬 11,810 박형규 3,800 박형신 8,750 박혜림 4,460 박혜영 7,600 방은미
 20,500 배민규 16,800 배재원 460 백동엽 3,790 변다희 2,230 변석현 2,680 변재은 5,030 본동초등학교사
 100,000 서상선 36,790 서상신 10,890 서영우 19,700 서예원 11,660 서울법대 426,120 서우 13,460 서인서
 26,840 설희원 2,110 성남중 21,330 성남중 31,890 성수빈 17,540 성예은 5,990 성윤 5,070 성준 4,320 성준영
 8,850 성하경 5,490 성하영 7,050 소낙현 21,710 손영우 10,980 손예진 7,140 손진하 12,650 손태경 17,970 송
 도욱 4,410 송동주 3,100 송용석 6,930 송유근 7,220 송은경 14,550 송은경 18,840 송은경 27,750 송주영
 8,180 송준협 3,240 송지호 9,670 신기현 2,510 신민 3,820 신소미 6,550 신재윤 11,510 신희윤 23,280 심준
 선 2,150 안기홍 11,000 안성무 9,080 안수정 23,050 안옥금 24,660 안옥금 24,660 안유선 5,420 안유진
 5,120 안윤상 5,020 양유경 4,790 양찬홍 10,970 양채순 9,500 양홍일 6,280 엄지영 20,540 여민찬 4,430 염
 지희 20,320 오성희 14,100 오세현 14,080 오윤정 28,700 오정민 17,030 오준 7,810 오해솔 17,160 오혜진
 8,280 옥경우 26,850 우영화 13,270 우연 19,660 우정 18,250 유서영 17,710 유세은 6,640 유영진 30,000 유우
 준 3,860 유정 8,740 유정인 19,560 유진선 16,370 유한준 5,010 윤다인 23,510 윤미옥 8,560 윤선재 28,190
 윤영서 17,070 윤영호 5,830 윤주희 1,180 윤창빈 6,210 윤혜민 5,750 이경주 2,040 이광원 13,190 이남희

10,730 이덕기 36,340 이동호 10,340 이명선 5,510 이미래 2,430 이상애 4,900 이상원 5,160 이상협 19,630 이상희 17,420 이새연 16,450 이수남 33,720 이수남 59,850 이순복 24,530 이순섭 이기갑 79,000 이슬기 1,460 이슬아 65,270 이슬윤 2,270 이승학 150 이승현 15,470 이연호 14,120 이연화 1,910 이영조 17,130 이영주 4,530 이영철일 7,580 이영훈 5,070 이에릴 6,130 이에빈 11,930 이에진 7,750 이옥순 48,710 이우종 10,400 이우혁 17,760 이은 12,450 이윤경 8,150 이윤경 8,430 이윤도 3,850 이은희 8,790 이인규 3,670 이장준 9,110 이재민 3,950 이재복5,890 이재순 27,500 이재웅4,430 이재현 16,170 이재희 4,980 이정근 9,250 이정련 6,570 이정연 6,630 이정인 640 이정인 24,250 이정현 26,920 이정훈 2,390 이종열 5,100 이주영 17,030 이주희 9,190 이준서 9,980 이지 16,310 이지윤 22,950 이진영 2,980 이진취 5,060 이진호 7,720 이찬우 26,020 이채현 3,150 이택근 11,340 이혜나 5,080 이현재 2,330 이현지 4,820 이혜민 6,230 이혜정 40,330 인휘훈 16,930 임가영 4,580 임규현 2,610 임대균 16,930 임무규 13,670 임보리심 10,000 임지묵 5,700 임초롱 5,290 임현정 18,910 임홍재 2,910 장도는 6,500 장동원 12,280 장선영13,020 장승경 8,070 장영석 10,000 장영은 18,590 장영은 52,220 장우연 19,710 장원빈 720장은영 19,770 장은주 4,290 장주호 3,380 장진혁 18,310 재혁 17,670 전민재 5,000 전시우7,640 전영은 6,490 전현호 5,990 전희진 20,760 정경숙 4,530 정경숙 15,350 정광우 3,780 정문규 9,190 정민기 6,500 정성호 12,380 정영수 18,910 정원혁 5,800 정유진14,930 정의영 3,700 정재준 12,930 정종호 2,000 정준기 14,320 정지민 16,250 정진화 3,000 정찬운 9,440 정찬진 9,750 정창록 12,020 정창영 93,440 정초림 5,420 정희승 8,060 조건행 3,200 조규찬 22,470 조선숙 8,320 조영란 24,870 조용석 4,490 조원우 28,960 조윤재 3,690 조윤해 22,170 조재연 8,320 조재현 8,120 조준희11,480 차동희 6,850 차승호 8,870 채승범 4,080 채영 3,360 최다미 6,200 최보현 14,410 최새은 8,480 최이림 6,860 최영동 47,700 최옥순 3,910 최윤재 6,870 최윤정 13,470 최윤희 24,590 최은석 31,490 최주희 11,880 최지은 3,160 최희민 9,630 최희선 23,580 칸두그룹 30,000 푸른하늘 5,490 하동완 1,420 한미영 28,000 한보영 1,570 한상재20,900 한수정 4,020 한우철 24,420 한주형 3,380 한주희10,230 허서영 11,140 허재순 10,000 현희련 11,480 홍서희 6,250 홍현주 3,380황대호 21,960 황성원 14,170 황영태 17,010 황유빈 5,180 황윤정 1,160 황지는 3,100 황현경 28,190 황혜선 17,020 희견행 23,400 회장영 15,600 Queen 7,260

■ 울산

거리모금 571,900 거리모금 118,400 김수원 46,000 김춘남 20,560 박선영 49,420 박정숙 20,140 박춘섭 31,440 손복현 21,410 손복남 6,250 오정희 32,690 이봉애 10,510 익명 24,400 천남미 15,120 최병옥 13,120 하인옥 24,090

■ 지역별명(은행입금)

김덕진 30,000 김재천 5,000 김정숙 10,000 김조현 20,000 김혜련 20,000 남정현 30,000 손정숙 31,000 신명숙 30,000 양옥자 236,750 양형식 20,000 오윤정 38,660 유말순 42,000 윤일경100,000 이랑섭 20,000 이정순 15,000 지제정사 50,000 전호석 21,200 정창태 68,280 조선새마을금고 11,890 허재순 5,000 황려사 52,000

■ 청주

거리모금 1,465,780 거리모금 413,690

★ 2002년 12월-2003년 2월 현재 자원활동가 ★

■ 한국

일 반 - 이순희,홍유식,김희수,송하경,장성호,정순덕,양영세,정통규,유미영,황미숙,조남희,배연정
 대학생 - 우성희(서울대),최지혜(동국대),정진아(고려대),류재홍(서울대)김효미(동국대)
 유창봉, 이건호, 이상만, 신호석(한양대)

청소년 - 연중훈,노형래,이정현,박준석,윤세일,이홍민,오창화,안기홍

■ 인도

김태정, 김태경, 장석우, 김동하, 최태숙, 박경미, 김자인

※ 바쁘신 중에서도 마음 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3. 2. 20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3. 2. 20 현재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장성호 / 자원활동가, 통일대지 저금통

내가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정도회를 통해서였다.

93년 정월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이 월간 '정도' 지를 주면서 한번 보라고 권하기에 읽어보니 불교 교리의 내용과 각 사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체험담 등을 보면서 신선한 감동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느끼면서 점차 불교 공부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는 50대 초반의 나이로 바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무언가 허전하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고뇌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친구를 따라서 성당엘 간 적이 있었는데 교리공부를 위해서 주중에 하루와 일요일등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나와야 한다는 데 나같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적도 있었다.

'정도' 지를 보면서 법륜스님의 법문테이프와 관련 책들을 주문해서 공부하였고 불교방송도 열심히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99년100일 법문 때 처음으로 법당에 나와서 예배도 보고 법문도 듣게 되었다.

3년 전에는 직장도 은퇴하게 되어 이참에 여생을 불교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였다.

그래서 평소엔 관심이 많은 참선과 불교 한문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느라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통일대지저금통 계수작업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일된 용어가 없어서 '돼지 잡는다' '돼지저금통 만다' '저금통 분해한다' 등으로 혼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마음나누기에서 '계수작업' 그리고 확인작업으로 부드러운 말을 쓰기로 하였다. 10,50,100원,--등 권종 별로 수량을 집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이 작은 정성이 모여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제된다고 생각하니 보람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 동안 통일저금통사업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